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역사적·성서적 유산”에 대한 논평

황대우 박사(진주북부교회)

박경수 교수님은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역사적·성서적 유산”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개신교의 성장정체현상과 낮은 신뢰도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하는데, 교회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인용하여 이러한 교회분열과 분쟁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일목요연하게 밝힘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체의 분열현상을 반성하고 교회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전개의 짜임새가 돋보이고 논리적이며 제시하는 자료들이 분명한 훌륭한 글이다. 또한 오늘날 사분오열된 한국개신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장로교가 귀담아 새겨들어야 할 알찬 내용들로 가득하다. 본 논문을 확대 적용한다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분열을 일삼는 한국장로교는 한마디로 자신의 근본도 모르는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여기서 근본이라 함은 시원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역사적으로는 장로교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근본교리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교회일치와 교회연합은 성경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개혁신학과 장로교회의 근본교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장로교회가 세계교회역사상 가장 심각한 핵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한국장로교회의 핵분열 현상 자체가 비장로교적이요 비개혁적이며, 나아가 비성경적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특별히 한국장로교회의 초기역사에 속한 1900년대의 선교사들 사이의 교회연합운동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제시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 점은 본 논문을 빛나게 한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다루는 이 글이 교회일치와 연합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과 열심에 대해서도 논하고 또한 초기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면서도 정작 그 두 요소가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연계성과 연속성을 가지는지, 즉 두 요소의 상호연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칼빈의 교회일치 사상과 열심이 초기한국교회의 초교파적 연합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즉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밝혔더라면 더 빛나는 논문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 초기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이 대부분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칼빈의 교회연합정신이 한국교회에도 수혈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것이며 또한 오늘날 사분오열된 한국장로교회가 반드시 연합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본 논문은 9쪽에서 초기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

합공의회 활동에 대해 “교회의 교리, 정치, 조직, 연합사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두 교파가 기꺼이 합친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었다. 아무런 알력도, 거침도, 이기심도 없었다. 한 쌍의 정신이 함께 접목되어 한국교회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활력이 되었다.”¹⁾라고 논평한 1908년 9월 『Korea Mission Field』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연합공의회는 서로 다른 정신을 가진 교파가 어떻게 하나로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이 되었으며, 미래의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예시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 장로교 개혁자 칼뱅과 녹스의 정통성과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의 열정을 동시에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 한다는 점을 밝혀 준 것이다.”²⁾ 여기서 마지막 문구,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 장로교 개혁자 칼뱅과 녹스의 정통성과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의 열정을 동시에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 한다.”는 것은 박교수님 자신의 평가인지, 아니면 각주에 인용된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평가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의 열정”은 교회연합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웨슬레가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해 칼빈과 같은 열정을 가졌다는 뜻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글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을 하나 더 묻고 싶다. 박교수님은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WCC총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한국교회의 분열된 목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1) F.G. Vesey, “The General Council: An Appreciation,”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08), 143.

2) *Ibid.*